

광주박물관에 '아시아도자문화 아카이브관' 건립

국립광주박물관 올해부터 3단계 발전방안 추진



지난 2016년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진행된 신안해저문화재 전시모습.

올해부터 국립광주박물관이 '아시아 도자문화 실크로드의 거점'을 목표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 광주박물관 내 도자실을 확대개편하는 가 하면, 오는 2023년 개관을 목표로 '아시아 도자문화 아카이브관' 건립도 추진한다. 2020년까지 신안해저문화재 이관을 완료하고,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2028년부터 동아시아 주요 도자기를 광주박물관에서 상설 전시할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은 지난해 국립광주박물관이 개관 4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개편을 위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국립광주박물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에 따른 결과다.

연구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광주박물관은 '아시아 도자문화 실크로드의 거

점'으로 비전을 세우고 3단계에 걸쳐 연차별로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박물관에 따르면 1단계는 '여건 조성기'로 지난해부터 동아시아 도자문화 연구 네트워크 구축과 동아시아 도요지 발굴에 나서고 있다. 또 베트남, 필리핀 등 도자기 생산국가 및 해양교역의 주요국가를 대상으로 자료 수집중이다.

광주박물관 건립의 토대가 된 신안해저문화재 이관도 내년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신안해저유물 2만4000여점 중 1만7000여점이 내달 1일까지 이관되며, 나머지 유물도 2020년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세계 도자문화 특별전이 올해부터 정례화 된다. '세계 도자문화 특



신안해저문화재 국립광주박물관 이관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직원들이 문화재를 포장하고 있다.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아시아도자문화 거점 목표 도자전시실·아카이브관 2023년까지 추진기로 신안해저문화재 2만여점 내년까지 이관 완료

별전-중국 자주요박물관 명품'전이 4월 30일부터 7월28일까지 개최되며, 7월에는 '한중일 화장도 자기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도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광주박물관의 핵심 과제인 도자전시실이 2020년에 신설된

다. 도자전시실은 현재 도자실과 신안실을 통합한 곳으로 광주박물관의 주요 유물인 신안해저 출토 도자기가 전시된다. 지난해부터 발간하고 있는 뉴스레터와 학술지도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11월에는 베트남국립역사박물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베트남 도요지 발굴조사에도 동참하게 된다.

2단계는 '기반구축기'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시행된다. 2단계의 핵심은 '아시아 도자문화 아카이브관' 건립이다. 아카이브관은 한국 도자문화 재발견의 매개자이자 한국과 아시아 문화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박물관은 아카이브관 건립을 위해 올해부터 예산 확보를 위한 건립타당성 용역에 착수했다. 아카이브관은 2023년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밖에 광주박물관은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우려해 선제적 시설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광주 북구 서하로의 상습 정체 원인으로 지적돼 온 박물관 입구를 북구청과 긴밀한 협의 끝에 박물관 전면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관람객들의 휴식을 위해 6월 말까지 교육관 지하 1층 도서열람실 앞에 '북카페'를 선보인다.

김승희 국립광주박물관장은 "도자문화는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면서 지리적으로 동아시아 전역을 아우를 수 있다"면서 "광주박물관은 광주와 전남을 넘어 전국 박물관으로 나아가는 문 역할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의 문화기관과 소통하는 문, 세계인들이 찾는 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지 기자 sangji.park@jilbo.com



소쇄원에 첨단기술 접목 28일부터 담빛예술창고 전시

조선시대 대표 별서정원이자 누정문화의 산실인 담양 소쇄원을 소재로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인터랙티브 콘텐츠가 전시된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오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담양 담빛예술창고에서 '담양문예르네상스 인터랙티브 콘텐츠 전:사유(思惟)의 정원, 소쇄원을 거닐다' 전시를 선보인다.

전시는 '소쇄의 시(時)'와 '뜻으로이론 공간, 소쇄원' 총 2개의 콘텐츠로 구성돼 있다.

'소쇄의 시(時)'는 소쇄원 사계 풍광과 소쇄원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허서김인후 선생의 소쇄원48영(瀟瀟園四八詠)을 사실적 3D그래픽으로 구현한 미디어파사드 콘텐츠다. 전시콘텐츠앞에서 서면 신비로운 음악과 함께 계절별로 변화하는 소쇄원의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뜻으로이론 공간, 소쇄원'은 소쇄원의 창건자 양산보와 함께 소쇄원을 걸어보는 가상현실 콘텐츠다. 헤드셋을 쓰고 양산보와 함께 소쇄원 곳곳을 거닐어보며 자연과 함께 학문을 고민했던 선비들의 지취와 숨결을 느껴볼 수 있다.

전시관 한 칸에는 송창근 사진작가(한국예총 담양지회장)의 '소쇄원 48영' 사진전도 함께 진행돼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소쇄원의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조선 선비문화의 산실인 별서정원 소쇄원이 품은 가치와 의미를 디지털 기술을 통해 재조명했다"며 "전시관을 찾아 새로운 방식으로 소쇄원을 체험하고, 과거 선비들의 풍류와 정취를 한껏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전시 콘텐츠는 전남남도역사문화연구원 '남도문예르네상스' 프로젝트 중 하나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전남 3대 별서정원 콘텐츠 개발 및 보급사업'을 통해 개발됐다. 올해에도 소쇄원을 비롯하여 강진 백운동 정원과 완도 부용동정원 등과 연계한 별서정원 콘텐츠가 추가적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박상지 기자 sangji.park@jilbo.com

장애·비장애인, 관악기로 환상의 하모니

정화용플룻 주최·주관 여수 청소년 플룻 앙상블 26일 여수 예술마루 공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자리에 모여 음악으로 교감하고 소통하는 화합의 연주회가 마련된다.

정화용플룻이 주최·주관하는 '사랑의 달팽이 클라리넷 앙상블과 함께하는 여수청소년플룻앙상블 제5회 정기연주회'가 "음악으로 행복 더하고 마음 나누는 우리"라는 주제로 여수 예술마루 대

공연장에서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번 연주회에 참여하는 여수청소년플룻앙상블은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2009년 창단해 현재까지 수차례 봉사 연주를 개최하는 등 음악을 통한 화합 무대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정기연주회 최초로 이번 기회에 같이 무대에 오르게 되는 단체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사랑의 달팽이 클라리넷 앙상블이다.

이 단체는 세계 최초로 청각장애 유

소년들로 구성된 클라리넷 연주단으로 사람의 음색과 가장 유사한 클라리넷을 통해 청각 장애 유소년들의 사회 정서적 재활 지원 및 사회인식교육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연주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음악을 통해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익숙한 클래식부터 귀에 익은 OST, 국악 등이 무대를 가득 채운다.

여수청소년플룻 앙상블은 이번 연주회에서 '조셉 보당 드 부아모르티에'의 '협주곡 가 단조'와 같은 클래식부터 하울의 움직이는 성 삽입곡 등 동요

와 팝송 등을 플루트로 연주한다.

달팽이 클라리넷 앙상블도 슈퍼마리오 배경음악, 스티비 윈더의 'Sir Duke', 맘마미아 등 귀에 익은 친숙한 음악들로 무대의 흥을 돋운다.

화합을 상징하는 마지막 무대로 연주회의 대미가 장식된다. 두 단체는 '청산에 살리라', '마법의 성' 등을 합주하며 관객들에게 최고의 하모니를 선사할 예정이다.

연주회 뿐만 아니라 부대행사도 펼쳐진다.

이날 공연장 앞에서는 아이들이 축제처럼 즐길 수 있도록 페이스페인팅, 크로키쇼, 포토존 등의 즐길거리가 마련된다.

김연식 전남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

은 "이 자리가 음악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서로 하나 되고, 즐기고, 행복해 할 수 있는 자리다. 학생들에게 어른들간에 장애를 떠나 음악으로 즐거움과 행복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자리다. 이런 자리가 학생들 주변에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축하했다.

여수청소년플룻앙상블의 지휘자인 정화용 플루티스트는 "무대와 즐길 거리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축제처럼 즐길 수 있는 연주회다. 이 연주회를 위해 우리 아이들이 오랜 연습을 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이번 연주회는 전서 무료이며 문의는 전화(010-7275-1209)로 하면 된다.

최황지 기자 orchid@jilbo.com

솔~찬한 남도이야기

팻호남가 - 南道 안중근 루트를 가다

안중근 의사는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대표 독립운동가 1위로, 그의 항일 혼은 남도 땅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장흥은 1955년 대한민국에서 처음이자 유일한 안중근 사당인 해동사를 건립했고, 하일빈 역과 같은 축선인 정남진 광장에 안중근 동상을 세웠습니다. 장성 상무대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동상이, 광주공원에 한때 최초의 기념비가 자리했습니다. 함평 상해 임정청사, 광주 상무공원, 중외공원에서 안중근 동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광주교사 팻팀이 제작한 팻호남가 특별 7부작 [남도 안중근 루트]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 제작·연출 : 광주교사 '팻팀'

- 1편>> 해주 출신 안중근 의사를 아시나요
- 2편>> 만주, 연해주 안중근 유적을 찾아서
- 3편>> 유일, 최초의 안중근 사당 장흥 해동사
- 4편>> 남도 땅 곳곳에 서린 안중근의 항일 혼
- 5편>> 장흥-함평-장성-광주 안중근 루트 만들기
- 6편>> 장흥 석대들에 핀 동학농민혁명의 불꽃
- 7편>> 살아서, 죽어서도 만난 김구와 안중근



팻호남가 듣는 법

- PC ▶ 팻카드 포털 [팻팻]에서 [팻호남가] 검색
- 핸드폰 ▶ 아이폰 : 팻카드 앱에서 [팻호남가] 검색
- ▶ 안드로이드폰 : [팻팻] 어플에서 [팻호남가] 검색

